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10월 13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 김현철 과장(044-203-4510), 김애경 사무관(4504)
미래부 연구성과확산과 손석준 과장(02-2110-2720), 이태준 사무관(2724)

산업부 · 미래부, 연구시설·장비 관리시스템 서로 연계키로
- e-Tube와 NTIS 정보를 공유하여 연구현장의 불편 해소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와 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양희)는 '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플랫폼(e-Tube)*'과 'NTIS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)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**'를 연말까지 연계하여 이중등록 등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.

* http://etube.re.kr

** http://nfec.ntis.go.kr

o 그동안 연구자와 연구기관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비로 구입한 연구시설·장비 정보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와 각 부처 관리시스템* 및 연구기관 자체 자산관리시스템 등에 반복적으로 등록해야만 했다.

* 산업부(www.etube.re.kr), 국토부(http://ctpass.kictep.re.kr), 농림부 (www.fris.go.kr), 환경부(http://ecoplus.keiti.re.kr), 농진청(http://atis.rda.go.kr) 등

o 이에 정부는 NTIS를 중심으로 부처 및 기관별 관리시스템을 쌍방향 정보연계 하여 하나의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다른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*하기로 하였다.

* '국가연구시설·장비 이용 효율화 종합 대책('13.12월, 국과심 본회의 심의)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o 특히 최근 5년간 NTI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28,286점(4조 1,980억 원) 중 42%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(11,883점, 1조 6,621억 원)와 35.3%를 차지하는 미래부(9,987점, 1조 7,251억 원)를 우선 연계하기로 하고 지난 1월부터 6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진행해 왔다.

o 이번 협의는 부처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독점에서 정보공유로 발전하고 있는 정부 3.0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으며,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대 축인 산업부와 미래부의 협력으로 정보연계를 통한 범부처 통합관리체계 마련에 보다 속도가 더해 질 전망이다.

□ 정보연계가 완료되면 부처별로 수집·관리되던 연구시설·장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신규장비 구입 전 중복성 검증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화에 활용되고, 원하는 장비 정보를 부처에 관계없이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연구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붙임 'e-Tube와 NTIS 정보연계 방안'

붙임 # 1

e-Tube와 NTIS 정보연계 방안

□ 정보연계의 추진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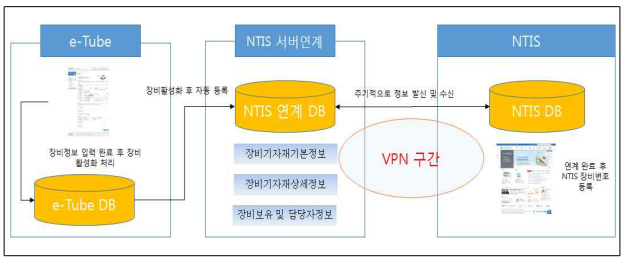
○ 각 부처 관리시스템 및 기관별 관리시스템과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(NTIS) 간 정보연계를 통하여 연구시설·장비의 정보관리 편의성 제공 및 정보일관성 확보하여 표준화된 관리체계 유지

□ 정보연계의 추진근거

○ 「2013년도 국가연구시설·장비 실태조사 결과 및 이용 효율화 종합대책*」에 따라 기관별 자산관리시스템과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(NTIS) 간 쌍방향·실시간 연계 추진

* 2013년12월19일,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안건

□ 정보연계의 추진방법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